

편집의 글(editorial review)

북한 제도, 전략, 일상의 탐색

Exploring North Korea's Institutions, Strategies, and Everyday Life

김두환*

이론은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변화를 위한 실천의 단초(또는 방향)를 제공한다. 북한 연구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극단적 대립·갈등 체제의 현실은 1970년대 이전까지 북한에 대한 이해를 국가안보의 상위 목적에 철저하게 종속시켜 왔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채택한 ‘자주’, ‘평화’, ‘민족’의 통일 3대 원칙은 위로부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에 하나의 충격이었다. 1980년대 사회민주화 운동과 함께 진행된 통일 운동 그리고 독일통일과 동유럽 자유화, 소련 붕괴 등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의미 있는 타자’로 등장한다. 그 의도와 무관하게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일환으로 남북 간 실질적 교류가 시작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그리고 일반교역 등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한다. 그 가운데 북한은 협력의 대

*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dhkim@lh.or.kr)

상이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북한 핵개발 문제 그리고 미중 간 국제적 패권을 둘러싼 경쟁구도 형성으로 남북관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지형은 협력과 갈등의 부침을 반복하고 있다. 크게 보면 한국 전쟁 이후 여전히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식은 적대적 타자로서 ‘적’과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할 (이미 하나였던) ‘우리’ 사이의 모순적 긴장 속에 놓여 있다.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 그간 북한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 속에서 (최소한 학문영역의) 중요 합의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을 ‘예외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완규(2003)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 연구접근법과 관련하여 국가안보 패러다임, 북한 바로알기 운동, 내재적 접근법 논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북한 연구방법론의 ‘성찰적 접근’을 제안한다.¹⁾ 먼저, 극단적 폐쇄성, 수령제와 권력 세습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는 ‘예외성’보다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틀에서 사회과학의 학문적 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 연구에서 어느 한 가지 패러다임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지만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포착하는 계기로 인정하자고 제안한다. 여러 가지 시각과 접근법의 경쟁은 남북관계 또는 북한이 처한 현실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조동호(2012)는 ‘공진(coevolution)’의 시각에서 남과 북 어느 일방의 관점이 아닌 함께 변화하는 양 주체의 관계라는 점에서 남북경협전략을 모색한다. 여기서 한국 내 보수와 진보적 시각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쟁점이 되는 주제별로 토론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들이 도달한 주요 결론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이해와 전략 대립의 많은 부분이 사실(fact)에 대한 이해 부

1) 1970년대 이후 북한 연구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최완규(2003)와 고유환(2015)을 참조.

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하나의 국가 사회인 한에서 북한 연구는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가능하고 불가피하다.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부터 국제관계 차원의 접근, 그리고 도시와 주민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연구까지 여러 층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각 층위의 연구는 그 자체로 또는 여러 층위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포착하는 역동적 접근도 필요하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독일 통일과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극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기존 전체주의 패러다임 등의 정태적 사회주의의 국가 접근이 그 사회의 내적 변화를 포착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유환, 2015: 43).

이번 북한 특집 기획의 주요 의도는 중층적, 복합적, 역동적인 시각과 접근의 북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북한 연구의 주류는 정치, 외교, 군사학 분야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북한을 둘러싼 여전한 정치·군사적 갈등과 단절의 현실 지형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북한 관련 정책연구와 도시 일상생활 연구(고유환, 2015: 41~47) 등 사회학, 지리학, 정책학, 도시학 분야에서 북한 연구는 북한 사회에 대한 종합적이고 더 풍부한 인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지리학, 계획학 등 분야에서도 북한 연구에 접근이 가능해지고 더 많은 기여가 요청되고 있다. 지정학적 시각과 접근을 통해 북한과 한반도,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치 구조를 더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경학적 접근과 상상력은 정치-경제적 힘의 위임 속에서 전개되는 역동적 변화를 파악하고 전망하게 해줄 것이다. 계획학에서는 남과 북,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적 공간을 넘나드는 이익, 가치, 문화의 갈등 그리고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번 특집 기획의 의도에 불구하고 특집

논문의 범위와 방법이 기대에 비해 다소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는 개별 논문 저자보다는 순전히 편집자의 부족 때문이다. 향후 더 깊이 있는 비판적 안목과 시각에서 진행될 다양한 북한 연구의 계기 마련에 일조한 것에서 이번 북한 특집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간 공간환경 분야 연구자들의 훌륭한 북한 연구가 없지 않았으나, 주제의 성격상 기획논문 투고를 의뢰한 이후 새롭게 논문을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미리 섭외하고 함께 준비하던 일부 연구자들의 깊이와 통찰력이 돋보이는 연구가 그러한 제약에서 이번 특집호에 실리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특집호 논문들은 그 주제에서 도시-농촌의 이원적 토지제도, 경제개발구 전략, 이미지를 통한 도시일상을 다루고 있고, ‘토지원리’의 이론적 틀에 기초한 비교분석, 북한문헌 분석, 인스타그램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었다. 그런 점에서 특정 주제의 범위 안에서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제도, 전략과 일상을 여러 방법으로 접근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성찬의 논문은 농촌 토지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의 대응전략을 비교한다. 북한의 『토지법』에서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라고 하듯, 토지(소유)제도는 체제를 규정하는 중요 제도이자 그 특성과 변화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토지제도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비교하는 것은 현재 북한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향후 대외관계 개선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전략을 추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도시와 농촌의 토지제도를 이원화하는 전략으로 도시토지는 국유화하고 농촌토지는 개인소유에서 협동화로 가는 방향성을 유사하게 견지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가구별 농지의 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보완’ 접근을 취했다면, 북한은 점진적으로 협동농장 토지를 국유화하는 ‘해체’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차이는 혁명정권 수립에 대한 농민의 기

여도 차이, 도시화 발전전략과 부작용의 차이, 그리고 토지소유 기준을 ‘공간’ 또는 ‘소유주체’로 접근하는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하였다. 조성찬은 도시와 농촌의 제도적 단절이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농촌토지의 국유화 전략이 이원성의 극복이라는 점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은 과제는 ‘평등한 자유의 공리’에 기초한 ‘토지원리’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농민의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그 기초 위에 농업협동조합을 새롭게 개편하여 농촌 발전전략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제언한다.

김두환의 논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북한 외자유치 정책을 대표하는 경제개발구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한다.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개발구가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불구하고, 경제개발구 전략을 다루고 있는 북한 문헌 내용을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경제특구의 성공조건에 비추어 (실제 북한의 정책적, 경제적 역량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 문헌분석이라는 점에서) 잠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검토 결과 북한의 대외정책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에 비해 더 전향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구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인프라 개발, 기술과 인력 양성, 외부경제와 연계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측면에서 그 실행 여부에 불구하고 전략담론 수준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근접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대외 관계 개선으로 경제특구 개발이 진행될 경우 기존 개성공단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현재 비교우위 요소의 적극 활용, 당국의 적극적이지만 제한적인 역할 등에서는 성공의 가능성과 함께 보완해야 할 부분도 확인된다. 개방 초기 북한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른바 단번도약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의 활용을 기대하는 외부 투자자와의 긴장을 통해 다양한 공간적 선택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전략에서 노동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경제체제의 전면적 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이 중국식의 점-선-면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점적 개방의 지방화와 전국화’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북한과 가장 대비되는 국제기구의 기준과 비교를 통해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황진태의 논문은 그간 북한 연구방법론의 국가주의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북한 도시연구방법을 시론적으로 제안한다. 북한 관련 자료의 구득이나 접근이 제한된 조건에서 그간 다양하게 활용되어 온 문헌자료, 구술자료, 시각영상자료 활용에 이어, 이미지 공유 중심의 특징을 갖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북한 연구에서 도시 일상생활 연구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황진태는 평양을 사례로 인스타그램의 이미지를 활용한 도시탐색의 다양한 해석을 실험적으로 흥미 있게 전개한다. 이를 통해 북한도시의 풍부한 실제 이미지가 어떻게 문화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예시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평양도시에 대한 예시적 적용에 이어,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 장의 이미지에 담겨 있는 다수의 공간성을 포착하는 접근을 본격 반영하는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둘째, 이미지 자료의 해석과 축적에 관한 장기적인 집합적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이미지 자료들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집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풍부한 인스타그램의 이미지를 활용, 분석하는 양적 연구방법론의 활용도 제안한다. 다섯째, 대북정보 수집 차원에서 SNS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여섯째, 지리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을 위하여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교수 및 학습안을 개발할 수 있다. 지금도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 평양 등 북한 사회를 담은 다양하고 많은 이미지가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연구자들이 북한도시 관련 다양한 주제와 시

각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유환. 2015. 『북한연구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서울: 한울, 27~53쪽.
- 김두환. 2019.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성공가능성 검토: 외자유치, 경제개발, 대안적 발전 측면에서』. 《공간과 사회》, 제29권 제4호.
- 조동호. 2012.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 서울: 한울.
- 조성찬. 2019. 『중국과 북한의 도시-농촌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변화경로 비교연구: 농촌 토지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9권 제4호.
- 최완규. 2003. 『북한연구방법론에 대한 성찰적 접근: 연구시각·체제성격의 특수성과 보편성』. 《북한연구 방법론》. 서울: 한울, 9~45쪽.
- 황진태. 2019.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에 관한 시론: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9권 제4호.